

愛情과 精誠과 信念

玄 勝 鍾
(翰林大 社會事業學科)

I

대학에 교직을 두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학문의 연구와 학생에의 교수와 사회에의 봉사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를 고루 이루기란 꼭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세 가지를 다 잘 수행하는 교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을 나 자신 잘 알고 있고, 따라서 自愧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청탁자가 “선생님이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학문연구나 학사운영면에서 후배 교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써 주시고…….”라는 주문을 하여 왔을 때에 당황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돌이켜 보면, 30대까지는 능력은 없으면서도 그런대로 밥을 새워 가며 열심히 학문을 한답시고 덤벼들어봤지만, 40 출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줄곧 학생처장이니 교양학부장이니 연구소장이니 도서관장이니 총장이니 이런 일들을 맡다 세월을 다 허송하면서 정년을 맞이하고 나니, 내게는 자랑할 만한 그리고 후배 교수들에게 남길 만한 학문적 업적이라고는 아무리 눈을 비비면서 찾아봐도 그림자 하나 나타나지 않으니 후회

막급 글자 그대로다.

그러나 나의 체험을 억지로 모색한다면 교수와 학사운영면에서 어저지로 구해볼 수 있기도 하다고나 할 수 있을 것이다.

II

나에게 주어진 주제를 크게 벗어나 길뿔을 좀 뜯는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1950년 6·25사변이 일어나자 주변머리 없는 나는 남이 다 남하하는 틈에 끼지도 못하고 서울을 빠져나지 못한 채 소위 도강파 아닌 잔류파가 되어 죽을 고생을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서울은 유엔군에 의하여 수복되어 구사에 일생을 얻었지만, 불과 3달이 지나자 다시 중공군의 지원으로 서울을 공산군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이른바 1·4 후퇴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다시는 잔류의 위협과 억울함을 겪지 않기 위하여 내간에는 재빨리 남하를 하여 대구에 오두막을 얻어 가지고, 말하자면 임시 정착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학교문은 열리지 않아 수입이 생길 리 없고, 그 복재통에도 가지고 내려간 약간의 가재를 하나 하나 팔아서 쌀을 사먹으며 내 내자는 시장에 나가 뜨게질감을 얻어다 샅바느질을 하여 생활을 꾸려나가는 형편이었다. 그러자 내손에 남았던 최후의 책 한 권인 영어사전을 고서점

에 가서 돈으로 바꾸고는, 다행히도 동료 젊은 대학교수들이 이미 여러 사람 들어가 복무하고 있던 공군에 입대를 하였다.

5주간의 훈련을 받은 후 대위 계급장을 달고 당장 공군본부 인사국의 賞典課長의 보직을 받았다. 그때의 일이다. 겨우 한 달의 그것도 가벼운 훈련을 받은 데 지나지 않으니, 내게 군인 정신이 제대로 몸에 뱃을 리도 없기는 하지만 나는 내 휘하에 있는 상진과의 사병들을 소위 기합을 넣거나 야단을 쳐 본 일 없었다. 그저 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다룰 때나 조금도 다름없이 인격을 존중하면서 타이르고 일을 지시하였을 뿐이다. 진정 내가 가르치던 학생과 똑같이 생각하고 대했다. 그랬더니 그렇게 나를 따르고 군인으로서의 예절과 절도를 지키며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인사국은 일이 과중하게 많았다. 낮의 근무시간중에 완전히 처리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일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경우에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건만 밤중에 몰래 잠자리를 빠져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인사국의 일이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서류상의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간혹 밤중에 순시를 하다 그 광경을 보고는 가슴이 뭉클하는 고마움을 느껴곤 하였다. 인격을 존중해 주고 인간으로서 의기가 서로 투합하는 것이 물리적 압력을 가하는 것보다 얼마나 효과가 많은가 하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때까지는 군대에서는 기합이 군인을 다스리는 필요불가결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러다 서울이 수복되었기 때문에 나도 서울에 올라간 국방부로 전근을 하게 되었는데, 상진과 10여 명의 장병들이 송별회를 해 준다기에 참석하였다. 송별회라야 주머니에 돈이 넉넉할 리 만무하니까, 어느 누추한 빈대떡집에서 탁걸리를 사 놓고 하는 모임이었지만, 그날 그 자리는 즐거운 웃음은 없었고, 한 순배 돌아가자 작별의 섭섭함과 아쉬움 때문에 마치 초상집보다 못하지 않게 흐느낌과 눈물로 말문들을 열지 못하였다. 사병들은 울었고 나도 물론 오열하였다. 생애를 두고 있을 수 없는 감격 그대로의 장면이었으며, 나는 그 하찮은 자리를 생애에 가장

영광된 자리였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III

자! 이제 대학에서의 경험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기로 하자. 내가 대학 예과에 다닐 때에 동대문에서 전차를 타고 청량리로 나가노라면 동덕여고 앞 큰 길가에 호랑이가 담배대를 물고 있는 간판을 붙인 포목상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내가 하는 경험담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나 다름없을 것이다. 학생들의 기질이 나 思考傾向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4·19가 일어났던 것이 1960년임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바로 그 해 2월 6일에 학생처장직을 맡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 달 조금 지나서 내가 있던 대학에서는 다른 대학보다 하루 빨리 4·18에 사건이 터졌다. 그 때 내 나이 41세였으니까 철이 들 만큼은 들었어야 할 때이지만, 참으로 당황스러웠다. 그 당시의 전후사정을 여기서 다 적을 수는 없지만, 그날 아침 새벽같이 관할 경찰서장이 집에 찾아와,

“오늘은 당신 대학에서 대대적인 ‘독재정권 타도’의 데모가 일어난다는 확실한 정보가 들어와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학생처장이 이를 막아 줘야 하겠다.”

는 간곡한 당부를 하였다. 나로서는 반대조건을 내세웠다.

“사복형사들이 교내에 잔뜩 깔려 있어, 이것이 학생들을 크게 자극하고 있으니, 그들을 교내에서 완전히 철수를 시켜 주면, 나로서는 데모 제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약속하였다. 관할서장은 내 요청을 들어 주었다. 사복형사는 사실 완전 철수하였다. 그러나 내가 한 약속은 지키지 못하였다. 미리 머리 띠까지 준비한 학생들의 데모는 밀물같이 교문을 터져 나가 노도처럼 안압동 로타리로 질주하였다.

나는 진정으로 죽을 힘을 다하여 제지하였다. 학생들이 주장하는 ‘독재정권 물러나라’의 구호가 충분한 이유와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잘 알면서도 말이다. 그 어마어마한 경찰병력에 수많은 학생이 연행되고 부상을 당

하고 병신이 될 것이 명확하게 예측되기 때문이었다. 큰 일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일는지 모르지만, 학교가 폐쇄될 것이 짐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민주국가를 꿈꾸고 있는 우리가 민주적 방법이 아닌 물리적 폭력으로 정권을 무너뜨려서야 되겠느냐라는 자기 합리화의 의식도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좌우간 어떠한 물불을 가리지 않고 私心 없이 또 정신 없이 진정으로 데모를 막았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거짓 없이 애정을 가지고 막았다. 자식을 가진 부모의 심정이나 조금도 다를 것 없이 전심전력으로 막았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하자면 신념을 가지고 막았다. 극렬한 학생은 붙잡아 사정 없이 따귀를 갈겨 가면서까지 막았다.

그러나 당시의 학생들은 어질고 소박하고 순진하였다. 스승에 대하여는 반항하지 않았다. 과시 난포하다고 하여야 옳은 표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생각해도 심하리 만큼 나를 잃어버리고 막았지만, 내드는 학생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따귀를 맞으면 뒤로 물러가거나 옆으로 도망치곤 하였다.

안암동 로타리에서의 일이다. 로타리를 꼭 메운 격양한 학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운집하고 전진의 기세를 멈추지 않고 내달았다. 뒤에는 제지하기 위한 경찰병력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의 하나이기는 하겠지만, 그 격노한 학생들의 군집 앞에서 학생처장인 내가 두 팔을 옆으로 힘껏 벌리고,

“자 내 팔을 제치고 앞으로 나갈 학생이 있거든 나가 봐라!”

라고 있는 힘을 다하여 큰 소리를 쳤을 때 감히 내 팔을 건드리는 학생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다만 답답하고 안타까운 나머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제발 좀 물러나 주세요!”

라고 애타게 호소하는 학생은 있었으나, 모두들 내 팔이 퍼진 선을 돌파하지 않고, 후퇴하여 학교 앞으로 들어가 버스를 타고 파고다공원 앞,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으로 결국은 진출을 하고야 말았다.

이기면 官軍이고 지면 賊軍이라는 말이 있다.

따지고 보면, 4·19는 성공하고 이승만 박사가 이끄는 자유당의 독재정권은 무너졌으니, 나는 틀림없이 적군으로 처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교수고 학생이고 어느 한 사람 나를 나무라고 탓하며 물러가라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수고했다고 위로하고,

“선생님 입장이나 심정은 저희들이 잘 압니다.” 라는 것이 모두의 인사말이었다. 사실 나 자신은 내심 교적마저 물러나야 할 것이 아닌가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IV

그리고 그 후도 데모는 쉴 날이 없었고, 그때 마다 내 성품대로 미련하고 우적하게 데모라면 무조건 막았다. 학생처장이라는 직분 때문만은 아니었다. 죽거나 부상할 위험이 있고 옥고를 치를 가능성이 도사린 데모에 자기 친자식더러 가담하라고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바로 그 심정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나로 하여금 역적의 낙인을 자오하면서도 데모 제지에 진정으로 사력을 다하게 하였다.

6·3데모 때의 일로 기억된다. 데모는 대규모 화했고, 역부족으로 수백 명의 학생이 경찰에 연행되어 어느 경찰서의 강당인가에 감금되고 말았다. 야간통행금지제도가 있던 때이지만, 재발중에 요란하게 지리링 전화의 종이 울리더니 연행된 학생들을 학생처장이 와서 인수해 가라고 하기에, 경찰이 제공해 준 차를 타고 그 강당엘 갔다. 강당에 들어섰더니 내 얼굴을 보고 어쩔 줄 모르게 반가와 하는 모든 학생의 모습에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왜 학생들이 그렇게도 순정으로 원하는 정치물 기성인들이 못하고, 이 정의감과 이상에 넘치는 순한 젊은 양들을 이런 데 몰아넣고 이 추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가라는 생각이 가슴을 스치며 내 학생들이 애처롭게만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울음을 삼키며 학생들더러,

“우리가 이 유치장에서가 아니라 교실에서 이렇게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외치며 왈카 눈물의 목소리를 더듬더듬 터뜨리고 말았다. 학생들도 덩달아 모두 목놓아 울어

했다. 참으로 착잡한 심경에서의 눈물들이었다. 거기에 입석했던 경찰관부 중에도 눈시울을 적시는 이가 더러 있었다.

한번은 교문 앞 큰 길을 사이에 두고 교문을 진출하려는 학생들과 그것을 제지하려는 경찰병력이 대치하였다. 학생들은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돌을 던졌다. 그 당시에는 경찰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돌을 던지는 것이 상례였다. 석전이 벌어진 것이다. 쌍방에 부상자가 나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석전을 멈출 눈치가 보이지 않고, 따라서 부상자는 늘어가기만 할 것이 뻔했다. 생각다 못해 내가 부상하거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어, 그 쌍방의 돌이 쉴 사이 없이 날아 오고 가는 한 가운데 우뚝 나가섰다. 결국 이것을 말릴 사람은 학생처장인 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다행히 쌍방의 석전은 언제 있었더라는 듯이 딱 멎고, 학생들은 교내로 들어갔으며, 경찰도 물러나 돌아갔다.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그 순간에는 참으로 기분 좋았고, 학생처장의 고역도 보람으로 느낀 한때였다.

물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데는 학생들의 지성과 교양과 사제간의 敬愛가 바탕이 되어 있었음은 물론이지만, 총장을 비롯한 교수 전원의 뒷받침이 있었음을 빼놓을 수 없다. 역시 6·3 메모 때라고 기억되지만, 학생들이 수백 명인지 천여 명인지 배를 지어 스크럼을 짜고 교정에서 워밍업을 하다가 드디어 교문 밖으로 나가려는 참이었다. 6월의 피약벌이 내리쬐이고 복사열이 화끈거리는 데낮이라고 회상되는데, 교문 진출의 자제를 호소하기 위하여 학교에 나와 있던 교수 전원이 교문 안에 연좌를 하였다. 그 중에는 몸이 불편한 교수까지도 끼어 있었다. 그랬더니 흥분의 절정에 달하였던 학생들이기는 하지만 과연 교수들의 연좌선을 감히 돌파하지 않고, 다시 교정을 들다 해산해 버린 일도 있었다.

한번은 여름날 밤인데 학생들이 교내 4·18기념탑 앞의 노천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로 농성은 풀리지를 않는다. 생각다 못해, 이것을 해산시키는 방법은

학생처장인 나 자신이 같이 단식을 하며 농성에 섞이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되었다. 할 수 없이 집에 연락하여 슬리핑백을 가져오도록 하여, 나도 노천에서 농성하는 학생들 틈에 끼어 받을 지새웠다. 역시 저녁을 굶었음은 물론 물 한방울 마시지 않고 행동을 같이했다. 그랬더니 사실 진정으로 '단식투쟁'을 한 것은 나 한 사람뿐이었고, 학생들은 수가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번갈아 가며 들락날락 모두 단식이 아닌 취식을 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학생들은 양식의 대책을 받았던지 슬금슬금 자진하여 농성을 풀고 해산을 하고 말았다.

당시의 외국 신문이 우리의 이 때의 데모풍조를 비꼬아 '메모로 밝아서 메모로 저무는 한국의 데모크러시'라고 표현하던 4·19 이후의 격동기를 나는 미련스럽게도 5년 8개월 동안이나 학생처장 일을 맡았었다. 그동안에 다른 대학에서는 거의 모두 학생처장이 여러 명이나 경질되어왔으니 나를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 6년에 가까운 긴 세월이 학생처장으로서 겪었던 쓰고 단 일을 회상하고 기록하자면 한이 없을 것이나, 화제를 탄 데로 돌려보기도 하자. 내용은 학생처장이 할 일이나 다름없는 일이지는 하지만!

V

내가 어딘가 모자라는 사람이요 분별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이야기의 한 토막이다. 생애에 첫 직장으로 택한 한 대학에서 출근 28년여를 근무하며 잔뼈가 굵었고, 나를 키워 주었으며, 또 내 온 정성을 다 바쳐 다리의 뼈가 부러지도록 봉사하였던 대학, 내 모교는 아니지만 모교보다 더 사랑했고, 그러기에 내 기질마저도 오히려 그 대학 졸업생보다 더 그 학교의 기질로 굳어져 있었던 대학, 그 대학을 나는 떠나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었으며, 또 그와 같은 나를 다른 대학에서 데려가리라고 생각해 본 일도 없었다. 그러나 백 번 적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는 격언으로 변명을 한다면 할 수 있을까? 5개월에 걸치는 계속되는 교섭에 나도 모르게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지

만, 하여튼 오래 정든 대학을 떠나 다른 대학의 총장이 되는 취임승낙서에 도장을 눌러 버리고 말았다. 사실이지만 명예가 탐이 나서도 아니요, 더 많은 월급이 탐이 나서도 아니었다. 하도 끈질기게 부탁하면 딱 부러지게 거절 못하는 내 연약함 때문에 도장을 눌렀던 것이다. 앞으로 신문이나 잡지에는 글을 쓰지 않겠다고 지난 연초부터 마음에 다짐하고도, 기자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또 여기에 이 잡문을 쓰는 것과 꼭 같은 우유부단성에서이다.

어떻든 한 대학의 총장으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그 대학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 대학을 경영하는 재단과의 불화가 이미 행동으로 폭발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실마저 모르고 취임승낙을 한 것이 어리석은 바보짓이요, 세상을 모르는 썩먹이라고 하여 마땅하지만, 좌우간 그 재단이 영입한 총장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첫째의 이유요, 둘째로는 교내에도 총장감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이면 서울대학도 아닌 다른 사립대학에서 총장을 데려오느냐는 것이요, 게다가 먼 훗날에나 회고담으로 쓸 수 있을까 한 理性을 잃은 주장과 행동이 실제적 작용을 하여, 총장의 발령을 받고도 3일간을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드디어 4일만에 큰 용기를 내어 총장으로서의 출근을 하였다.

사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생각을 하였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총장자리에 앉는 일을 강행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그러나 총장자리에 탐이 나서가 결코 아니라, 오기로라도 총장자리에 만사차치하고 앉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첫째로는 다른 특정 사립 대학에서 왔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근 30년이나 몸담았던 학교에 불명예를 안겨 주는 결과가 되니, 그 대학을 욕되게 할 수는 절대로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둘째로는 내가 총장이 될 학교의 어느 때 총장이 총장의 발령을 받고도 교문 안에 발을 들여놓아 보지도 못한 채 총장을 사퇴하였다는 아름답지 못한 역사나 전례를 남기는 것은 또한 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세계로는 나 자신 별로 잘난 교수였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나 나름으로는 교육자로서는 큰 허물 없이 깨끗하게

그리고 정성껏 살아왔는데, 이제 받아들여야 할 학교가 데모를 하고 소란을 부린다고 간단히 물러난다면, 세상에서는 내게 무슨 큰 허물이라도 있어 쫓겨났다고 볼 것이요, 그렇게 되면 나 개인으로서는 백 년의 공든 탐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결과가 되니 결사적으로라도 총장자리에 앉아야겠다고 결심을 하였던 것이다.

나흘만에 총장실에 출근을 하였더니, 아닐세라 수백 명의 학생이 홍수 같이 와르르 총장실 문턱을 부수며 험악한 기세로 밀려들어 당장에라도 나를 완력으로 끄집어 낼 분위기였다. 나는 총장실 응접셋트의 주인석에 앉아서 그 광경을 좌시하였다.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었다. 누가 총장을 시켜 달라고 운동이라도 하여서 총장이 된 것도 아닌데 밋다고 하는 재단이 임명했더라도 임명권자가 나에게 교섭을 해서 내키지도 않는 사람을 끌어다 놓고 이것이 무슨 것이냐 말이다.

총장실은 이층 끝에 있었는데, 현관에서 총장실까지 학생들이 들쭉 같이 뛰어드는 데도 교수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심지어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그것을 제지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니 일사천리로 총장실에 학생들이 팽 밀려든 것이다. 그때 내가 만일 조금이라도 당황하여 상기한 얼굴을 보이거나 팔다리를 부들 부들 떨기라도 하였다면, 학생들은 나를 틀림없이 총장실 밖, 아니 교문 밖으로 끌고 나가 내쫓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4·19 이래로 학생의 데모를 다룰 데로 다루어 본 ‘백전용사’였다. 태연하게 의자에 앉은 채로, 그 격노하여 자기를 잃은 학생들에게 차분히 의자에 앉으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미안하지만 카페트 위에라도 앉으라고 타일렀다. 이에 학생들의 총천원 기세는 꺾이는 듯이 보였다. 여기에는 물론 교직원도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학생회장이나 학생과장마저도 나타나지 않았다. 글자 그대로 비유하자면 ‘적지’의 한복판에서 고군분투한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자네들 왜 이러냐?”라는 말로 대화를 걸었다. 학생들은 날더러 절대로 ‘총장’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다만 교수라는 호칭만은 붙여서 “현교수는……” 운운하면서 경어를 써 주는 것만 해도 고마웠다.

벼라벌 질문이 많이 튀어나왔다. 모욕적인 질

문도 중구난방으로 막 쏟아져 나왔다. 하다못해 “현교수는 평안도 상놈인데 어떻게 우리 양반학교의 총장으로 올 수가 있느냐?”, “현교수는 기독교 목사라고 하던데 어떻게 유교학교의 총장이 될 생각을 감히 하느냐?”라는 등등의 되는 말 안 되는 말, 있는 말 없는 말 학생수 만큼의 총장실을 꽉 메운 입이 있는 대로 움직이는데, 나는 내대로 불쾌하기 짝이 없지만, 그것을 꼭 참고 일일이 남뜬이 가리 만큼 억지로 웃는 얼굴로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 끝으로 나는 “자네들이 꼭 나를 이 총장자리에서 몰아낼 구실을 찾으려거든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내가 있던 대학에 찾아가서 내 허물을 캐내 오게! 자네들의 고등학교 동창 등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 대학의 거의 모든 학생이 아마 나를 모르는 학생이 없을거야. 그리고 내가 교수나 총장이 되기에 부적격한, 예를 들어서 사기협잡을 해먹었다든가 몸가짐이 좋지 못했다든가 강의를 잘못했다든가 학교행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등의 잘못이나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다고 고집할 철면피한 인간은 아니야!”라고 일러 주었더니, 그날은 총장실을 매웠던 학생들이 자진해서 후퇴를 하였다. 참으로 장시간의 입씨름이었으며, 학생들이 나가고 나니 백이 꼭 빠져서 한 잔의 빙수를 단숨에 들이마시고 의자에 머리맡 기대고 말았다.

학생들과의 입씨름은 그것으로 일단락 지은 것으로 나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밤중에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사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음날 출근하자 다시 학생들은 베를 지어 질풍처럼 총장실을 또 습격하는 것이 아닌가. 말리는 사람도 없으니 총장실 문을 부수어야 할 필요도 없진만 애꿎은 그 문짝을 떠밀어 넘어뜨리면서, 전날과 다름없는 험난과 질문의 공세가 쉴 사이 없이 던져졌으며, 나는 내대로 알아들으리 만큼 그리고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으리 만큼 대답을 해주었다. 전날의 형세로 보아 미세는 총장에게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고 판단하였던지, 다음날에는 학생처장이 임석을 하였으며 대화에 더 주고 받을 것이 없게 된 마지막 판국에 가서 학생처장은

“자, 이제 그만큼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이제 는 다들 퇴장하지!”라는 한마디를 던져 주었고, 그것으로 그 이후 총장실 습격은 없어졌다.

VI

그 당시의 내 심경이 착잡하였을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지만, 나로서 가장 섭섭하였으며 새로운 사회공부물 한 것은 이런 지경에 처하면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친지도 없고, 심지어는 제자도 없구나하는 사실이었다. 참으로 놀랐다. 세상이란 이런 것이로구나라는 면을 새로 공부한 것이다. 그러나 또한 나로서 가장 고마웠고 영구히 잊을 수 없는 일은, 내가 본래 있던 대학의 모든 식구들이다. 총장은 총장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그리고 내 사랑하고 아꼈던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지만 총동원되어 구원작업에 희생적으로 나서 주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원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내가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거도를 한없이 올렸다. 나 자신에게는 종교가 없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보편적인 신에 신성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리고 내 우유부단함을 뼈저리게 한탄했다. 아무리 백 번 아니라 천 번 적더라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 역경 속에서나마 나는 5년 6개월 동안 총장직을 유지하였다. 역시 미련한 소치이지만 그 대학의 역사상 아직까지는 최장수 총장의 자리를 차지했다. 끝마무리도 역시 좋지 않게 6개월의 남은 임기를 채 채우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그 대학에 대한 정은 밟던 꿈던 들 대로 들어서 항상 잘되기만을 염원하면서 지금도 그리우면 간혹 그 대학을 찾아가곤 한다. 지금에 와서는 친정 같은 느낌마저 들음은 역시 인정의 귀결이리라.

부질없는 잡담을 회고의 형식으로 써서 격조 높은 「大學教育」誌를 더럽혔음을 용서바라며, 동시에 요즈음 세태에 겨누어 다소라도 참고될 말이 있다면 다행이겠다. *